

특별기고



# 그래도 희망을 묻는다, 팔레스타인

글 · 미니 [miniwata@gmail.com](mailto:miniwata@gmail.com)

제가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활동을 한지 올해로 6년째입니다. 그동안 팔레스타인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께 팔레스타인을 쉽게 설명할 수 있었던 방법 가운데 하나는 예전에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였듯이 지금 팔레스타인이 이스라엘의 식민지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인들에게 한국을 설명할 때도 지금 팔레스타인이 이스라엘의 식민지이듯이 한국도 예전에 일본의 식민지였다고 하면 이해를 잘 하십니다. 한국과 팔레스타인이 또 하나 닮은 점은 1987년입니다. 1987년은 6월항쟁이 있었던 해입니다. 그리고 1987년 팔레스타인에서는 팔레스타인 저항 운동의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티파다(민중항쟁)가 있었습니다. 1987년, 아시아의 동쪽 끝과 서쪽 끝에서 한국인들과 팔레스타인인들이 민주주의와 자유를 함께 외치고 있었던 거지요.

민주주의를 향한 저항의 역사에서 또 하나 닮은 점은 왜곡과 거짓 선전입니다. 1980년 5·18민중항쟁이 일어났을 때 정부와 언론들은 광주 시민들을 폭도니 빨갱이니 하면서 몰아부쳤습니다. 팔레스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팔레스타인인들이 아무리 자유와 평등과 평화를 부르짖어도 미국과 이스라엘, 주류 언론은 그들을 테러리스트 또는 극단주의자로 몰아부쳤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F-16 전투기, 아파치 헬기를 동원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폭격을 했습니다. 돌을 던지지 못하게 하겠다고 아이들의 팔을 부러뜨리고 사람을 목만 남겨 놓고 몸을 땅에 묻기도 하고 감옥에 거꾸로 매달아 놓고 두들겨 패기도 했지요. 지난 2000년부터 2008년 말까지 부산시 인구와 비슷한 400만 명 가량의 가자지구와 서안지구 팔레스타인인 가운데 5천여 명이 이스라엘 군인에게 살해되었습니다.

### **선거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지금 팔레스타인에는 팔레스타인의 전체가 아닌 일부 소규모 지역을 대상으로 자치정부가 들어서 있습니다. 2006년 1월에는 자치정부 총선이 있었는데 선거 과정에서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은 팔레스타인인들에게 공개적으로 하마스를 찍지 말라고 했고, 이스라엘 정부는 하마스의 후보자들을 감옥에 보냈습니다. 하마스와 파타두 당이 대부분의 의석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하마스를 공격함으로써 파타두를 지원하고 나선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민주정치 체제를 갖추고 있다고 자랑하는 미국과 중동 유일의 민주주의 국가라고 스스로 주장하는 이스라엘이 벌인 일입니다.

반대로 팔레스타인인들은 자신의 정치적 선택이 국제적으로 존중 받기를 바랐습니다. 선거는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졌고 이집트,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은 다른 아랍 독재 국가에 비해 민주주의가 가장 발달했다고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체 132석 가운데 하마스가 74석을 얻어 집권당이 되었다는 결과입니다. 쉽게 얘기해



▲ 이스라엘군의 학대 행위를 표현한 그림

▼ 옥중 당선된 하마스 소속 후보자의 사진을 들고 있는 팔레스타인인

서 한 기업에서 노조 위원장 선거를 하는데 사장이 싫어하는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자 사장이 조합원들에게 그 후보를 찍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조합원들은 자신의 뜻대로 선거를 치렀고 사장의 심기를 불편하게 한 거죠.

하마스가 집권을 하게 된 이유 가운데 하나는 하마스가 그동안 이스라엘의 점령에 계속 저항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팔레스타인인들은 평화나 협상을 싫어하는 걸까요? 물론 아닙니다.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약자일 수밖에 없는 팔레스타인인들은 그동안 수많은 양보를 해 왔고 수차례 평화협상도 해 봤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인들이 하나를 내어 놓으면 두 개를 더 내어 놓으라 하고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살인과 학대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팔레스타인인들은 '좋다. 어차피 그동안 파타가 주도했던 협상으로 달라진 것은 없으니 우리도 좀 더 강한 목소리를 내어 보자' 는 마음으로 하마스를 선택한 거지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벌어진 일은 선거 한 번 제 뜻대로 치룬 결과라고 하기에는 너무 큰 것이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하마스는 테러리스트다', '더 이상 협상은 없다' 며 하마스 정부를 비난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EU(유럽연합)까지 나서서 팔레스타인인들에게 들어가던 모든 자금줄을 끊어버렸습니다.

이 당시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서 온 이메일은 제 마음을 안타깝게 했습니다. 외부로부터 들어오던 모든 돈이 끊겼으니 공무원으로 일하던 사람은 월급을 받지 못하게 되었고, 유럽 쪽에서 지원해 운영하던 단체에서 활동하던 사람도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가뜰이나 실업률이 높은 판국에 팔레스타인인들에게는 그야말로 죽을 맛이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 EU의 요구는 간단합니다. 하마스가 물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돈을 줄 없어서 팔레스타인인들을 압박함으로써 하마스를 포기하라는 거죠. 그러자 더욱 살기 어려워진 팔레스타인인 사이에서는 불만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루아침에 자신의 정치적 결정을 뒤엎을 정도는 아니었죠.

2006년 여름에 미국이 지원하고 이스라엘이 실행한 두 개의 전쟁이 벌어집니다. 6월 말부터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를 공격하더니 7월부터는 레바논을 공격한 것

입니다. 두 개의 전쟁은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팔레스타인에서 친미 마흐무드 압바스 대통령 진영에 대항할 수 있는 가장 큰 세력이 하마스입니다. 레바논에서 친미 푸아드 시니오라 총리 진영에 대항할 수 있는 가장 큰 세력이 헤즈볼라입니다. 그리고 하마스와 헤즈볼라는 모두 정치정당이자 군사조직이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교육과 의료 등 각종 사회복지 사업을 해 오고 있습니다. 하마스와 팔레스타인인들이 계속 저항하는 바람에 이스라엘군은 2005년에 가자지구에서 철수 했고, 헤즈볼라와 레바논인들이 계속 저항하는 바람에 이스라엘군은 2000년에 레바논 남부지역에서 철수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전쟁 목표가 된 것은 바로 하마스와 헤즈볼라의 파괴입니다. 가자 지구는 하마스의 주요 지지 기반이었고, 이스라엘의 폭격이 집중된 레바논 남부 지역은 헤즈볼라의 주요 지지 기반이었습니다. 두 전쟁의 결과는 수 천 명의 사상자와 부서진 건물과 사회 기반 시설의 파괴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는 국제적인 비난이 쏟아졌고, 하마스와 헤즈볼라 모두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다음으로 선택한 것은 적으로써 적을 제압하는 이이제이(以夷制夷) 전술입니다. 즉, 마흐무드 압바스와 파타에게 돈과 무기를 제공해서 하마스를 공격하고 쿠데타를 일으키라고 한 것입니다. 파타 내부에는 여러 가지 조직들이 있어서 파타 전부가 여기에 동참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파타 가운데서도 주로 상층부와 부패한 정치 세력들을 중심으로 쿠데타에 동참 했습니다. 그리고 연일 언론에서 신나게 떠들어 댔던 ‘팔레스타인 내전’ 이 벌어졌습니다.

가자지구에서는 파타와 하마스 사이에 충격이 오갔고 사상자가 계속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2007년 6월 하마스의 승리였습니다. 하마스가 경제 봉쇄, 군사 공격, 쿠데타까지 이겨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마스가 집권당으로 제대로 정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서안지구에서는 이미 마흐무드 압바스 대통령이 정부를 해산하고 자신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새로운 정부를 구성해 버렸습니다. 마흐무드 압바스가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자 미국과 EU 등이 다시 자치정부에게 돈을 제공하기 시작했고, 이것은 돈과 힘으로 팔레스타인의 정치를 쥐락펴락 하겠다는 것입니다.

### **봉쇄와 학살 그러나 연대와 희망**

쿠데타 시도가 실패로 돌아간 뒤 이어진 것은 가자지구에 대한 봉쇄 강화였습니다. 만약 한국이 외국으로부터 식량· 의약품· 석유 등을 사들여 올 수 없다면 한국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자지구가 외부와 연결 될 수 있는 길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스라엘 지역으로 연결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집트 쪽으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쪽은 당연히 이스라엘이 검문소를 닫아걸고 물품의 이동을 차단하면 되었습니다. 그리



예루살렘의 기념품 가게에 진열되어 있던 한 기념품. 미국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단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고 이집트 쪽은 가자지구와 이집트 사이 국경 검문소를 자치정부와 공동 관리하고 있던 EU가 이스라엘의 요청대로 검문소를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이스라엘의 봉쇄 정책에 협조 했습니다. 식량 공급은 제한되어 식료품 가격은 폭등하고, 주유소에 마저 기름이 없어 자동차는 멈춰 섰습니다. 기초적인 의료기구나 약이 없어서 환자들은 죽어갔고, 외부로 나가서 치료를 받던 사람들도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서 죽을 날만 기다려야 했습니다.

도저히 살아갈 길이 보이지 않던 가자지구 팔레스타

인인들은 2008년 1월 이집트와의 국경 지역에 설치되어 있던 장벽을 폭파 했습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수 만 명의 사람들이 이집트 지역으로 넘어가 식량·가스·의약품 등을 사들고 가자지구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다음으로 미국의 해외 원조를 많이 받고 있는 이집트의 무바라크 독재 정권은 가자지구 주민들의 어려운 현실은 외면한 채 군대를 동원해 국경 지역을 다시 봉쇄 했습니다. 빵을 구하러 국경을 넘는 사람들을 총을 동원해 비참하게 감옥으로 밀어 넣은 거죠. 미국, 이스라엘, EU, 이집트 어느 하나 가난한 이들의 힘겨운 삶은 돌아보지 않고 오직 자신들의 부와 권력만을 추구했던 것입니다.

지난해 12월 27일부터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 대한 공격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1982년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침공해 팔레스타인 난민들을 대량 학살한 이후 최대 사건이었습니다. 광주시와 비슷한 150만의 인구를 가진 가자지구에서 22일 동안 계속된 공격으로 1천 3백여 명이 사망하고 5천 5백여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팔레스타인인들이 기도하고 있던 이슬람 사원, 갈 곳이 없어진 주민들이 피난을 와 있던 학교, 구급차와 방송국, 정부기관과 대학교 등 어느 것 하나 이스라엘의 폭격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산소 공급이 중단될 때까지 사람의 피부를 타들어가게 만드는 화학무기인 백린탄을 뿌려댔고, 붙잡은 팔레스타인인을 앞세우고 다른 팔레스타인인들을 공격하는 인간 방패 전술까지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1월 17일 일방적으로 휴전을 선언한 이후에도 소규모의 폭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바다에는 군함이, 하늘에는 전투기가 떠있고 땅에는 군인들이 총을 들고 지키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큰 감옥 가자지구에서 팔레스타인인들은 쓰러지고 피 흘리며 울분을 쏟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학살과 미국의 일방적인 지원이 계속되자 한국을 비롯해 세계 각지에서는 연일 집회와 시위가 계속되었습니다. 제가 지난 6년 동안 팔레스타인 연대운동을 하면서 한국인들이 이렇게 많이 행동에 나선 것은 처음 봤습니다. 베네수엘라와 볼리비

이스라엘이 파괴한 팔레스타인인의 집은 가자지구에서는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이는 이스라엘과 외교 관계를 끊겠다고 했고, 벨기에는 이스라엘에 무기를 수출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노동자들은 이스라엘 배가 항구에 들어와도 일을 하지 않겠다고 했고, 영국의 대학생들은 학교와 도서관을 점거하며 학교 측이 이스라엘 기업과의 관계를 끊고 팔레스타인 학생들을 지원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희망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1980년 광주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모두 낫을 놓고만 있었다면 한국의 민주주의는 지금과 같은 모습을 갖출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가자지구 팔레스타인인들은 다친 사람을 치료하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있습니다. 다시 사람들을 모아서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스라엘이 지난 22일 동안 과연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를 세상에 알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많은 사람을 죽일 수는 있었지만 팔레스타인인들을 완전히 굴복시킬 수는 없었고, 과거 남아프리카 공화국 백인 정권이 그랬듯이 국제적으로 점점 고립되어 가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보면 탱크와 전투기를 가진 사람들이 이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긴 시간을 놓고 보면 지금은 약하지만 미래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총으로는 자유를 향한 인간의 의지를 사라지게 만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글 · 사진 미니 |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활동가